

# 고양시, 발달장애를 고민하다



## 10세 남자 자폐성장장애아동의 어머니

아이를 키우는데 심적으로 외로워요. 같은 장애 아이의 엄마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다른 아이와 내 아이는 성향도 다르고 고민 달라요. 결국 남편과 아이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 6세 여자 자폐성장장애아의 부모님

고양시에서 우리 아이가 자라며 필요한 것을 함께 상의하고 점점 나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들어요. 다른 곳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벌써 받은 것 같아서 참 든든합니다.

고양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약 4,000명으로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의뢰, 가족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글 박정은 사진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을 일컫는다. 그 수는 23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5%이고 전체 장애인의 9.1%로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발달의 지연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보

호자의 돌봄 부담이 타 장애인에 비해 높다. 실제로 전체 장애인의 33.9%가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비교해 지적장애인은 78.9%, 자폐성장장애인은 87.3%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장애인의 비형제자매 지원 가온누리



장애청소년 성교육

고양시는 2017년에 고양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지원을 돕는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발달장애인 한 명이 영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기로 진입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까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이런 지원체계의 마련을 위한 기본 요건에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복지서비스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이 많았고 장애인의 욕구가 우선되기보다는 서비스에 장애인이 맞춰야 하는 모습이었다. 고양시는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다.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와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업도 지원한다.

또한 전체 발달장애인 중 21~60세의 비율이 59.7%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60%에 육박하는 만큼 이 시기에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서비스 절벽을 겪는다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의미 있는 낮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행복한 도시'라는 슬로건의 민선7기에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신규개소를 준비 중이다.

고양시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Tip

##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 위치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59번길 92
- ☎ 문의 발달장애인지원(031-8075-3646~9), 장애인가족지원(031-8075-3650~2)